

圖書館發展의 指導集團

李 俊 杰
國史編纂委員會

어느 한 나라에 있어서 圖書館普及이 원만하게 이루어 졌다면 初期에는 이를 수행한 현신적인 社會集團과 先導的 役割을 담당한 階層이 있었을 것이다.

古代東洋의 경우는 儒敎思想에서 유래한 經典등의 刊布내지는 保存事業이었으며 西洋의 경우도 寺院文庫라든지 修道院에 依한 聖書普及 管理 등은 近代圖書館 普及具現에는 未洽했다.

近代에 있어서 英美의 圖書館發展의 主導集團은 모든 市民이 知的 文化的인 生活의 갈망과 現實의인 要求에 立脚한 市民性의 高揚으로 이루어 졌는데 이는 文化的 思潮를 바탕으로 한 市民階層이었고 소련을 비롯한 東구라과 의 圖書館發展은 中央集權 體制로 組織된 強力한 行政力에다 莫大한 資金을 支給하여 추진한 中央政府의 官僚集團이다. 하지만 가까운 日本은 일찍부터 開化思想에 迎合하여 中央集權과 地方分權의 妙를 살린 國家의인 次元에서 圖書館政策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에 便乘하여 讀書熱에 執着된 國民性은 家庭文庫를 낳고 나아가서 經營者集團의 自覺으로 圖書館普及의 振興을 보게되어 그 發展에 主役을 담당하였다.

그러면 오늘날 圖書館普及의 初期過程을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主導集團은 과연 어느 階層일까. 觀點에 따라 見解를 달리 할수도 있겠지만 普及의 初期단계로의 主導集團은 圖書館學 專攻者의 組織된 集團이라고 규정지어도 무방할 것 같다. 수립된 圖書館學의 土着化過程에서 國家施策마저 國防 建設등의 産業化 一邊倒로 치우쳐 人文·社會科學의 萎縮현상은 圖書館分野까지 영향을 받아 왔으며 政治的 牽制力, 法的인 拘束力이라든지 利害集團의 壓力 갈등 등은 普及化過程에 큰 장애가 되고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속에서 組織된 專門集團은 찬란한 傳統文化위에 社會福祉와 精神文化 開發에 우선 比重을 둘것을 主張하며 한나라의 工業化추진도 先進國으로 부터 받아들인 새 學問 새 情報의 資料活用에 따르는 調査 研究의 結晶인 精神資源에서 잉태所産됨을 認識시키고 韓國의 圖書館發展에 嚮導的 旗手로 꾸준히 활약하고 있다.

이와같이 韓國은 例의 先進諸國과 같은 法的인 強力한 行政力의 誘導策과 國家豫算의 支援策, 人的인 國民性의 熱望, 財政的인 經營者의 參與意識 등의 결여로 그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落後된 社會의 思考方式 그대로 圖書館振興策은 一種의 消費性向視를 當하여 包容에 인식하고 浮揚策은 언제나 敬遠視되어 뒷전으로 밀리기만 한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難題를 안고서도 단결된 專攻集團은 布望을 가지고 社會의 르네상스와 科學文明의 發展도 頭腦의 總本山인 도서관진흥에 있음을 自覺하고 그 여른을 환기시켜 政策에 反映을 모색하고 있는限 한국의 앞날에 文物奇形의 暗影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當面한 精神資源構造의 後進性을 극복하고 한국圖書館보급화 과정을 촉진하기 爲해서는 國家權力에 依한 圖書館政策이 不可避하며 침체현상을 타파하고 加速發展의 第一走者로 登場해야할 集團은 첫째 政府當局이며 國家主導型으로 이끌어야되고 그 뒤를 따를 둘째 集團은 産業一邊倒로 因한 蓄積된 富를 社會에 還元하여 더욱 값진 再生産의 素地를 마련하는 圖書館振興에 積極 參與하고 셋째로는 圖書館主體의 國民性向의 讀書熱인데 이것은 內的문제로 우리나라의 國民性은 世界 어느나라 國民보다 冊을 파고드는 素養의 留保者인 만큼 知者優位의 社會環境을 造成하는 政策啓導가 必要하다.